

해양수산부,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7. 7.(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청년인턴과의 소통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7일(화)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턴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년인턴 간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청년인턴을 약 6개월간 채용하여 해양·수산·항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 홍보·통역 등 취업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행정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청년인턴 20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팀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공공부문 업무체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매너 등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전문가 특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해양수산부에서의 직무 경험이 공공 부문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장차 해양수산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인턴 활동이 청년 세대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황성오 (051-773-5050)
		담당자	사무관	서민재 (051-773-5060)